성령모독 사례연구

(눅12:10-15a)

10.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11.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12.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 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13.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14.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15.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성령모독 사례연구>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성령을 모독한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은 마태복음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전혀 맥락이 다릅니다.
바리새인의 외식을 누룩이라고 비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감염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외식을 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에 대해 가르칠 때 그 가르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바리새인의 외식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끔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의 외식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으로 기뻐하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돈도 노래를 부르는 자가 돈을 벌었을 때 기뻐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외식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르면서 돈으로 기뻐하는 것, 이게 바로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모든 사람에게 감염되어 버립니다.

선민의 세상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입으로 말하면서, 실제로 마음으로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자신이 아니고 다른 것일 때에, 그로부터 하나님에 관해서 배우는 모든 사람들은 십중팔구는 바로 그 외식에 감염되어 버리고 맙니다.

이 외식에 대한 주의 끝에, '성령을 모독하면 사하심을 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걱정스럽고 두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구분해 낼 수 있지 않으면 걱정스러운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어떤 죄라도 사하심을 받는데, 성령을 모독한 죄만큼은 사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연쇄살인범은 사하심을 받는데, 목사님 중에 장로님 중에 권사님 중에 성령을 모독한 사람은 사하심을 못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라는 이름을 알아야 모독을 할 거 아닙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무엇인가 아는 자가 모독도 하는 것이지, 아예 성령님을 모르는 자는, 연쇄살인범이 성령님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연쇄살인을 한 다음에는 사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인은커녕, 정말 사회법상 나쁜 짓이라고는 조금도 하지 않은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들도 성령을 모독해서 사하심을 받지 못하고 멸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되겠어요. 성령모독에 대한 말씀이 나올 때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우리를 진단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감사하게도 막연한 이야기, 기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사례를 누가복음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령모독이 뭐냐? 이 사례를 통해서 배우라 이겁니다.
어떤 사례가 그 다음에 나옵니까?
성령모독에 대한 얘기가 나온 다음에 어떤 사례가 나옵니까?
자!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무리 중에 누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주님께 부탁을 하냐 하면 '내 형을 명해서 유산을 내게 나누어주게 하세요!'라는 얘기를 합니다.
유대법상 유산은 맏형이 있으면 형이 2/3를 갖고 동생이 1/3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 형이 자기 동생에게 1/3 몫을 나누어 주지 않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권위가 있으신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예수님의 권위를 통해서 형에게 명령을 하게 되면 형이 아마 말을 듣고 자기 몫의 1/3을 주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을 해서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하는 모양입니다.

근데 예수님 반응이 또 좀 어색합니다.
어떻게 어색하냐?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 사람아'라고 부르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이미, 예수님 스스로가 모욕을 당하신 것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한 것은 사실은 그렇게 예수님을 모욕한 게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물건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세웠느냐?' 상당히 모욕을 당하셨다고 하는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탐심을 부린 겁니까?
탐심을 부린 거로 말하면 형이 탐심을 부린 거지요.
지금 여러분이 이 경우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경우를 당한 것이라면, 형이 유산 중에 마땅히 나에게 돌아와 될 몫을 주지 않고 자기가 다 차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그게 만약에 90억이라 그러면 그 중에서 30억이 내 돈인데, 30억 내 것을 주지 않고 90억을 다 가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이게 구체적인 사례라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모독의 구체적인 예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왜 예수님에 대해서 재산상속을 재판해 달라고 부탁한 이 사람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될까요?

이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 지상에는 육체로는 없으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자리에 이제 성령님께서 오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몸으로 계신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자리에 성령님이 들어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몸으로 계신 예수님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은 용서가 되지만, 성령님에게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경우에는 사하심을 못 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유산을 나누도록 형에게 명령해 주세요!'라고 나오는 이 사람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게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거라는 겁니다.
지금 네가 몸으로 있는 나, 예수님을, 몸으로 있는 나를 그렇게 모욕한 것은 용서를 받지마는, 내가 이제 이 땅을 떠나고 성령이 내 자리에 오셨을 때에, 네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선민으로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구원 못 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이렇게 모욕을 하는 것일까요?
왜 사회적으로 정당한 권리 주장이 주님께는 탐심으로 보이는 것일까요?

첫 번째 성령의 모독은 이 케이스를 봐서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재판장으로 물건 나누어주는 사람으로 임명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욕입니다, 모독입니다.
예수님을 임명한다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밑그림을 다 갖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잘되려면, 성공하려면 이러이러하게 삶이 진행되어야 된다, 이런 요소가 필요하다.
다~ 밑그림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그림을 그리는 주체가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역할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에 따라서 예수님을 임명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모독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성령님께서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거꾸로 돼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리시는 내 인생의 밑그림 안에서 내 몸의 쓰임새를 성령님이 결정을 하시는 것

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밑그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전이라는 말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교회가 강단에서 자꾸 비전얘기를 하는데, 그 비전이 어떤 비전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받은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비전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비전하시고 하나님이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일이지 내가 바라볼게 아닙니다.
그래서 밑그림을 갖습니다.
비전을 중심으로 내 인생의 밑그림을 갖게 되고, 거기에서 성령님의 역할을 생각해 내서, 성령님께 그 역할을 위임하게 될 경우에, 이게 바로 성령모독이라는 겁니다.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각오를 해야 되느냐!
베드로에게 '네가 젊을 때는 네가 원하는 대로 띠 띄고 다녔거니와 네가 늙어서는 띠 띄우게 되고 네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끌려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내가 성령님에 의해서 쓰임새가 결정이 되는, 그런 형국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탐심이라는 건 뭘까요?
결국 성령모독이라는 것은 나의 탐심을 위해서 성령에게 위임장을 발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이런 역할을 해 주세요, 내 탐심을 위해서'
근데 오늘 본문의 이 사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탐심 같지가 않아요.
사회적으로 보장 되어있는 마땅한 권리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모독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땅히 우리는, 상식적으로 마땅히 해도 될 줄로 알고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성령모독에 저촉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탐심은 앞에 있는 바리새인의 외식과 연결해서 이해를 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뭘 탐심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람의 마음속이 비어있지 않습니까? 아예 만들어지기를 그렇게 만들어 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빈 마음을 무엇인가로 채워야 배부름, 만족이 있고 그 만족감에서부터 기쁨

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에요.
그런데 주님이 탐심이라고 일컫는 것은, 아무리 이 세상 사회가 정당한 것이라고 보장한 것일지라도, 내가 내 마음을 그 비어있는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고 이 세상 이 지구 안에 있는 다른 것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할 때에, 그것이 바로 탐심이라는 겁니다.
마땅히 바랄 수 있는 것 이외의 것을 바라는 게 탐심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이 만족과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바랄 수 있는 것은 운명적으로 딱 하나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뿐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비어있음을 채우기 위하여 우리가 욕구할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뿐인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욕구하는 모든 게 다 탐심이라는 겁니다.
모든 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만족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이것이 없기 때문에 불행하다, 지구 위에 있는 어떤 것들 중에서 그것이 없기 때문에 불행해서 그것을 채우려고 한다, 다 탐심이라는 겁니다.
내가 바랄 수 있고 마땅히 바라야 될 것, 내 몫으로 주어져 있는 것 이외에는 다 탐심인데, 내 몫으로 주어져 있는 나의 유일한 기업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이 세상 사회가 이 세상 상식이 이 세상 만인이 인정하는 정당한 것일지라도, 그것으로 만족하려 할 때에, 그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려 할 때에 그 모든 것은 다 탐심이 되어 버리고,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 채우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의 역할을 생각하고 간구하고 간청할 때, 그게 바로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빈 마음을 채운다는 것은 연합한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위가 비어있을 때, 밥을 집어넣으면 위 속에 밥이 담기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위 속으로 들어가서.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돈으로 채우려고 한다 그러면, 내 마음 비어있는 곳에 돈이 들어오면서, 돈과 내 마음이 연합하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만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만이 들어오셔서 내 빈 마음을 채우실 분이어야 되는데, 다른 것이 들어올 때, 이게 바로 연합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더러움이 발생하는 영적 간

음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간구하게 됩니다.
뭐를 위해서? 탐심을 위해.
탐심이라는 게 뭐라고요? 영적 간음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자리가 내 마음입니다.
하나님만의 자리인데, 다른 것이 들어와서 연합하게 되니까 이게 영적 간음이고 더러움인데, 내가 만약에 이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 세상살이의 형통, 이 지구 위에서 하나님 자신 이외의 다른 것들을 마음으로 원하면서 성령님께 손을 내밀 때, 더러움의 프로젝트를 위하여 Holy Spirit, 거룩하신 성령을 동원하려고 하는, 성령모독 죄를 짓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해서 이 세상살이가 형통했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이게 다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마음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져지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실제로 느끼도록 하시는 그 일에 종사하시는 분이시고, 그렇게 내 마음이 이 지구를 떠나서, 하나님과 천국에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로 완전히 만족해서, 하나님 품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 이 몸을 당신이 생각하시는, 성령님 스스로 생각하시는 쓰임새를 따라 사용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장갑처럼 나를 끼어서 움직여 가시는 것이지요.

성령모독, 분명합니다.
내 인생의 밑그림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면서, 십자가를 향하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나 자신이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성령모독의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제 이 세상 권세자들한테 잡혀가는 일이 있을 텐데, 그들 앞에 나갔을 때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조차 생각하지 마라.’
그 정도로 내 인생에 대해서는 내가 계획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앞에서 해야 될 말을 그 즉시에서 줄 테니까, 너는 그 즉시, 그 즉시 매 순간순간 성령님이 너를 사용하시는 대로 사용되어지면 된다. 그러므로 ‘네 인생에 대해서 완벽하게 포기해라, 버려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모독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분명하고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을 내 마음으로 담는 겁니다.
주님을, 그 주님의 죽음이 내 마음에 약기운처럼 퍼져나가지 않으면, 그 주님의 죽음을 내 마음이 먹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내가 또 주체가 돼서 살아나서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 인생에서 필요한 것들을 내가 생각해 내고, 이 지구 안에서 원하는 것들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면 그게 탐심이 되어버립니다.
그 마음을 나도 모르게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대할 때, 이게 바로 성령모독이 됩니다.

그러므로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모독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체적인 사례 속에서, 내가 만약에 이런 욕심쟁이 형을 만나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먼저, 형이 갖고 간 내 돈 30억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놔둬요 일단, 나둬.
일단 죽고, 내 마음은 그 30억이 있으면 너무 좋겠지마는, 그 30억에 대해서 죽고, 대신 이쪽 방향으로 마음을 돌려서, 30억을 등을 돌리고 하나님 쪽으로 향해서,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채워져서 30억이 지금 안 주어지고 있는 상태에서도, 30억이 원해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으로 만족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기쁨으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해 주실 일을 찾아서 역할을 해 주실 수 있는 우리의 마음가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기 위하여, 이게 탐심이 아니니까.
오직 구할 수 있는 것은, 내 몫으로 사회가 정한 30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만이 내 몫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원할 때,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을 느끼게 해 주시고 실제로 내 마음 안에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만족했습니다.
내 돈 30억 갖고 간 형을 보면서 웃을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으로 만족하도록 기도하고 기다

리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그런 다음에 성령님께서 그 형에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때, 권세자에게 잡혀갔을 때 할 말을 미리 준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욕심쟁이 형에게 갈 때에, 네가 하나님으로 완전히 만족하고 있다면, 성령이 동행해서 너를 형 앞으로 끌고 갈 텐데, 그때 형 앞에서 무슨 말을 할지를 걱정하지 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지요.
아니면 성령께서 아예 '지금은 말하지 마라, 내버려 둬라' 이러실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떠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그 형에게 역사하셔서 형이 자기가 미안하다고 갖고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 30억이 내게 들어오면 안 되는 거니까 아예 떼어버린 것일 수도 있고, 30억이 필요가 없으니까.
아니, 천하를 지은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셨는데 30억이 있거나 말거나, 하나님 뜻이면 있는 거고 아니면 없는 거지, 그게 뭐 대수입니까?

성령모독, 이 케이스를 들여 다 보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잘 들여다보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마음을 가지면, 성령모독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잠시라도 주님의 죽음을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그 죽음으로 내 마음이 먹지 아니하면, 반드시 우리는 성령모독을 할 수밖에 없는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기쁨으로 내게 오셔서, 당신의 뜻을 마음대로 역사하실 수 있는 장소가 되어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